



NEWS LETTER

2020년 7월 27일 Vol. 379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 의료기관으로 지난 7월 22일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를 치료한 전국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구조적인 부문과 진료과정 및 진료결과에 대한 총 13개 항목에서 이뤄졌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0년 제1회 평가부터 전 기간 1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내 상위 10% 기관에 선정되어 진료가산 지원기관에 포함되었다. 전체 의료기관 평균 84.4점 보다 높은 95.8점으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최우수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앞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대장암, 폐암, 급성기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중증도 질환 및 고난도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한 바 있다.



음압형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 편의증진과 의료진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지난 7월 21일 설치했다. 새롭게 운영되는 워크스루(Walk-Thru) 선별진료소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및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독과 방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어 운영된다. 의료진과 피검사자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완전하게 구분된 동선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 전 과정이 진행된다. 의료진은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한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채취 후 소독과 방역시간이 줄어 보다 신속하게 많은 검사가 정밀하게 진행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재우 감염관리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직원들이 감염위험과 무더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며 “워크스루 도입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진료회신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율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7월 14일 ‘2020년 상반기 진료회신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율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반기 진료회신율 우수 진료부서는 피부과가 선정됐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율 우수 부서는 안과 외래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부서에는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병원의 신뢰도와 진료 연속성 강화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바쁜 업무 중에도 항상 노력해주시는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초복 맞이 식사 돌봄’ 이벤트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7월 16일 초복을 맞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삼계죽을 대접하는 특별한 식사 돌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벤트는 여름철 대표보양식인 삼계죽과 여름 과일을 제공하며 그동안 간병으로 지쳐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벤트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맛있는 삼계죽을 먹으니 힘이 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상연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장은 “초복을 맞아 더위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병원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통해 지루한 입원 생활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